



덴마크, 비만세 폐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2011년 세계 최초로 '비만세(fat tax)'를 도입하였던 덴마크가 1년 만에 과세 포기를 선언

- 덴마크 정부는 11월 10일 비만세를 비롯하여 도입 예정이었던 설탕세와 초콜릿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발표

■ 덴마크는 비만 문제 해결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1년 10월부터 2.3% 이상의 지방을 포함한 모든 식료품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바 있음.

- 덴마크는 유럽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만율과 낮은 기대여명 수준을 보였음.
 - 국민의 47%가 과체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3%는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.

■ 비만세는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보다 소비자, 생산자, 유통업자 등에 미치는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폐지됨.

- 비만세 도입 이후 식료품 물가 상승, 생산비용 증가, 식료품 소매업 위축,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.
- 소비 측면에서는 질 좋은 고지방 식료품은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질 낮은 저지방 식료품 소비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가 그만큼 축소됨.
 - 비만세 부과 이후 2.3% 이상의 지방이 포함된 버터, 오일, 소시지, 치즈 크림 등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9% 상승함.
- 생산 측면에서는 고지방 식료품 생산에서 저지방 식료품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추가됨.
- 유통 측면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고지방 식료품을 인접 국가에서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국내 판매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

● 특히, 덴마크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해 북유럽 국가 중 가장 취약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, 비만세 관련 경제적 손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.

■ 덴마크 정부는 식료품에 대한 과세가 국민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기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함.

● 비만세 도입 실패로 같은 취지를 지닌 설탕세와 초콜릿세 도입에 대한 계획도 더불어 폐지됨.

(Wall Street Journal, 11/11)